은성수의 광폭행보… 소·부·장 찾아 '안정·혁신·포용금융'

〈신임 금융위원장〉 〈소재·부품·장비산업〉

취임 후 본격적 현장 행보

내일 안성 반도체 장비社서 간담회
18일 핀테크스케일업 현장 간담회
19일 日수출규제 피해상담센터 방문
20일 서민금융지원센터 현장점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선다.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안정·혁신·포용'의 3대 분야 현장을 모두 방문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17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에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를 연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도 자리를 함께 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오는 19일에는 금감원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방문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혁신 분야의 첫 행보는 핀테크 현장이다. 은 위원장은 오는 18일에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가 당면한 과제라면 혁신성장 지원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부문이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창업지원 공간인 마포혁신타운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창업초기의 자금조달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창업우대자금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내놓고 신임 금융위원장의 브랜드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현장도 빼놓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오는 20일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다. 향후 포용금융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서민금융 원스톱서비스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서민금융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24% 이상 이자지급 거부하세요"

금감원 Q&A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숙지
우편물 등 입증자료도 모아둬야

Q. 2017년 대부업체와 체결한 금리 27.9%의 대출계약을 올해 초 갱신했는데 최근에야 2018년 2월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이 24%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업체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 저의 채무내역과 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전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2018년 2월 8일 이후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했다면 연 24% 이상의 이자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에는 소위 '선이자'는 물론 감정비용, 공증비용과 같이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것들이 포함(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반을 살펴보고 대출이자가 연 24%를 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업체가 불법적으로 빚을 독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방문하거나 폭언,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는 사례도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 추심 사례나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불법 추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아울러 원금을 감면해주겠다며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제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보통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부업체가 채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게 되면 대부업체는 갚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될 때까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주 기자 hj89@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추석연휴 통합IT센터 방문

'카드차세대시스템' 성공적 이행 당부

NH농협은행은 지난 14일 이대훈 행장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통합IT센터를 찾아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카드차세대시스템의 성공적인 본이행을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를 찾아 직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통합IT센터 임직원들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차질 없는 카드차세대시스템 도입을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 일시중단 된 일부 카드업무의 순차적인 오픈과 동시에 운영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행장은 "추석 연휴에도 카드차세대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휴기간 동안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KB금융, DJSI 월드지수 4년 연속 편입

리스크관리·금융포용성 등 최고평가

KB금융그룹은 지난 14일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 4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DJSI는 미국 S&P 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RobecoSAM)이 공동 개발한 세계적 권위의 지속가능경영 지수다.

글로벌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책임이나 환경경영 등 비재무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다.

올해 DJSI 월드 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26개 글로벌 기업 중 12.6%인 318개,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개가 편입됐다. 은행산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 BNP파리바 등을 비롯해 전 세계 25개 금융회사가 편입됐다.

KB금융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리스크관리 ▲고객관계관리 ▲금융포용성 ▲금융범죄예방정책 등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안상미 기자

"시장 안정 위해 당국 간 국제공조 필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 참가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1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및 그에 준하는 국가 중 감독기구를 통합한 20개 국가의 비공개모임이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열렸다. 한국은 창립회원국이며, 2001년과 2018년 의장국으로서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유 수석부원장은 미·중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역할과 감독당국 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대외건전성, 금융산업 건전성, 투자여건 등이 크게 개선돼 금융시장의 복원력이 높아졌음을 적극 알렸다.

또 유 수석부원장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참가국 대표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유럽국가들과 함께 기후금융 감독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내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자 34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의 이용자수가 340만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선보인 '내 신용정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28일 만에 이용자수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누적 300만명(중복 제외)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용자수는 지난 10일 기준 344만4000명이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0만명 안팎이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 생활을 위한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수록 대출 한도나 금리,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상미 기자